한희원 작 '생의 파문'(Ripples of Life)

"작업은 고통스러운데 즐겁다" 청년작가와 사유

'2025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전 열려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의 만남' 주제
시립미술관 4월까지 '생의 파문' 눈길
박성완 노여운 손지원 김용철 등 4명

"함평군립미술관 초대전(2025.4.1~5.25)이 이뤄진 2025년 5월 이후 신작들을 몇달간 집중해 해내느라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작업량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작업을 했다기 보다는 전시가 있을 때마다 작업량이 뒷받침된 가운데 새롭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절대적으로 작업량이 중요하죠. 이럴 때 작업은 고통스러운데 즐거운 일이라고 봐요."

'2025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전에 임하는 한희원 작가가 지난 2일 오전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의 만남'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6전시실에서 만나 밝힌 소감이다. 작가의 전시는 지난 1월 30일 개막, 오는 4월 12일까지다.

한 작가가 이번 수상작가전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미술밥상이 아닌, 지역의 명망있는 청년작가들에게도 기꺼이 작품 발표기회를 안겨줬다. 굳이 이들 청년작가들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모두 채워 열어도 무방한 전시 자리였다. 한때 청년작가로서 출발해 이름만 대로 알만한 작가로 성장했지만 그도 청년 작가시절은 있었다. 과거의 청년 작가가 열악한 가운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청년작가 손을 잡아 이끈 셈이다. 그래서 이번 수상작가전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청년과 지금은 지역 간판 작가 중 한명으로 통하는 한 작가 사이에 인상주의 대가인 '오지호'(1905~1982)라는 미술혈류로 끈끈하게 묶여지는 공통분모를 찾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고민을 젊은 세대와의 사유와 소통 속에서 나누고자 해 남다른 의미를 더한다.

3년 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50여 년에 걸친 화업을 조망하는 초대개인전(2023.9.7~12.17)을 성황리 연 바 있는 작가에게 이번 전시가 각별한 이유는 추상이라고 하는 변화를 시도해서다. 다만 여러 각도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한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10년 정도 민중미술에 천착, 장터를 방문하며 펼치는 장터전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우리들의 풍경들에 천착했다. 원래 시인이 꿈이었던 화가는 화폭으로 옮겨와 그 꿈을 펼치려 했다. 그림 속에

'생의 파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작가들. (왼쪽부터) 노여운 박성완 한희원 손지원 작가.

문학적 색채를 많이 투영해서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조형적 풍경보다는 사유적 풍경에 탐닉해 작업에 집중했다. 인도 라다크나 티베트 같은 오지를 돌았던 이면 역시 문학적이며 철학적인 사유들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존재 및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는데까지 가닿았다.

작가의 미술적 행보는 미술교사에서 전업화가로 돌아선 뒤인 40대 이후 한층 더 작업이 치열해졌고, 감상자 누구나 보더라도 그리움이나 쓸쓸함, 고독감 혹은 외로움을 망라해 정서에 기반한 작가의 독창적 작품세계를 직감할 수 있는 등 회화적 깊이에 살을 보태왔다.

3년 전 초대개인전이 그의 회화 인생 전반을 훑는 자리였다면, 이번 전시는 그가 추상의 길로 들어선 변화의 화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장에서 이를 가장 압도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작품은 '생의 파문'이었다. 이 작품은 500호 두 점이 위아래로 배치됐다. 셀 수 없을만큼 덧칠하고 밀어서 마무리한 추상 작품으로, 사각의 색채 형상들과 균등하게 공간을 분할한 배열 외에 그동안 줄곧 추구해왔던 그만의 색감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완전하게 추상으로 진입하기 전 작품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에 앞서 제5전시실에는 '2025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인 박성완씨를 위시로 노여운, 손지원, 김용철씨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민중의 삶과 사회현실을 화폭에 담아온 한희원 작가의 초기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는 박 작가의 '촛불 캐리커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촛불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원작은 캐리커쳐 주인공들에게 전달이 된 상태로 전시에는 그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모았다.

66명의 민중들이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다. 순간에 포착한 노여운·손지원 작가는 1990년대 한희원 작가의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풍경 작업과 맞닿아 있고, 독일에 머물며 작업을 하고 있는 김용철 작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핵심으로 한 한희원 작가의 '생(生) 시리즈'와 상응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 노여운 작가는 '기다리다' 등 5점, 손지원 작가는 '번지는 순간들' 등 6점, 김용철 작가는 '나의 고요' 등 3점을 각각 출품해 선보이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MBC, 전국 MBC 중 3년 연속 시청률 평균 1위

광주MBC(대표 김낙곤)가 MBC가 실시한 2025년 경영평가 권역별 시청률 조사에서 전국 16개 지역 MBC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MBC 본사는 닐슨미디어코리아에 의뢰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MBC는 전체 평균 시청률 5.7%를 기록했다.

이에 전국 16개 MBC 계열사 조사권역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광주MBC는 주요 시청시간대인 오후 7시~새벽 12시 평일 프라임 시간대에서 6.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주말 역시 오후 5시~새벽 12시 4.7%를 달성해 평일과 주말 모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역 MBC 가운데 3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해도 광주MBC의 시청률은 크게 앞선다. 지역 내 경쟁 채널인 KBS 1TV는 4.5%, KBS 2TV 4.1%, SBS 2.8%를 보여 격차를 벌렸다.

이는 단순히 지역 MBC 내 1위를 넘어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독보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결과다.

원승연 광주MBC 경영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문화방송이 광주·전남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매체임을 수치로 증명한 결과이다"며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구성원들의 헌신과 지역 시청자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어우러진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 본부장은 "3년 연속 시청률 1위라는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깊이 호흡하는 방송을 만들 것"이라며 "더욱 품격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간결하고 명징한 시상…존재의 기억 깨우다

문귀숙 제2시집 '사과를 씹는 속도' 출간
시간의 행방 탐색…제4부 구성 55편 수록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문귀숙 시인이 두번째 시집 '사과를 씹는 속도'를 현대시학 시인선 162번째 권으로 최근 펴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잠들어 있다시피한 기억들을 흔들어 깨운다. 그의 기억은 낭만적 추억의 성격을 지닌 기억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사는 존재의 내면에 여전한 활성을 가진 기억에 가깝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인의 내면적 추이를 개괄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현재적 삶의 근저를 살피는 유의미한 연관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시집은 유의미한 연관물들을 한층 더 간결해진 시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명징해진 비유를 시 속에 녹여내고 있다. 애매모호한 의미 대신 선명한 시상을 끌어가고 있다. 분명한 비유들로 인해 시를 읽는 맛이 복잡한 시상에 대한 해석보다는 간명해진 이해를 가져가면 된다는 이야기다.

시 '어느날'만 보더라도 실감이 난다. 시인은 '덜 기울기와 더 가울기의 반복/곧 무너질듯한 오른쪽 마비를 왼 다리가 후들거리며 끌어간다/물속을 걷듯 헤쳐나가는 걸음나비가 한 발을 넘지 못한다/걸음을 지워버린 몸이 다시 걸음을 익히는 것은 처음 배우는 걸음마보다 더 어려워 고꾸라지고 오래 일어나지 못했다/천변을 달리다 숨이 턱에 걸려 눈을 떴다/숨을 가다듬는 졸음도 꿈도 헛것이다/하릴없는 시간이 무릎 위로 쏟아진다'고 노래한다.

표제처럼 속도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산물의 개념으로 읽힌다. 처음에는 동적인 삶의 주체를 상징한 듯하다. 그러다 동적 특질을 상실하고 난 뒤 정적이 된 후로는 시간의 행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 그것이 '시간이 무릎 위로 쏟아진다'는 시인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다. 시인의 삶 역시 속도의 안팎에 존재한다.

시간의 압박은 구체적 형상으로 시적 자아 곁에 놓여진다. 시 '사과를 씹는 속도'에서 '소리가 옵니다…중략…괜찬다는 주문으로 비명을 외웠

던 날 점점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심장이 뛰는 소용돌이 속으로 간과 위장과 십이지장을 물고 빨아올립니다…후략…'이라고 읊는다.

현시대의 분주하고 물질만능의 풍조 한 단면을 엿보게 하지만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오버랩시킨데다 심리적 상황까지 세세하게 드러난다.

이번 시집은 '여름 해가 숨어버린 한낮', '이 골목은 환하다', '말이 웅얼웅얼', '울음 없는 눈물이 부장되는' 등 제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한 시 55편이 실렸다.

고재종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시인의 말은 현존의 진실이다.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사람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말은 말해지지 않아도 보인다' 랄지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들은 이미 말의 내용이 남과 공유되는 것이 전제돼 있다. 부재와 현존, 꿈과 현실, 거짓과 진실, 공유와 비밀을 표현하는 말은 모든 사물과 사건에 어떤 이름이 단정적으로 주어질 때 생긴다. 한데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면 더 이상 이름이 아닌 이치를 우리는 안다. 그래서 시인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감각하고자 '이름을 모르는 나무들의 숲'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도 '익명의 여름 나무 한 그루'가 된다"고 밝혔다.

문귀숙 시인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광주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 2016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등단. 시집 '둥근 길'을 펴냈다. '둥근 길'은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금 및 아르코 문학나눔에 선정된 바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 문화누리카드로 도서·음악·여행 즐기자

1인당 15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은 지난 2일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만원 인상된 1인당 15만원이며, 청소년기(2008~2013년생)와 준고령기(1962~1966년생) 대상자에게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카드 발급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광주시 9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 ARS를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발급은 조기 마감된다.

한편,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클래식 공연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2매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예매 및 현장 결제가 가능하다. 문의 062-670-5724.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

문화의숲도서관, 초등 3~6학년 대상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역사 논술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꼬.꼬.한) 프로그램을 오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6회차 운영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는 단순 역사 지식 암기를 넘어,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로 표현하는 융합적 사고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EBS 교재를 활용해 아이들이 한국사 지식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 강사와 함께 역사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숲도서관 관계자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위한 가장 좋은 교과서"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역사 인식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논술의 달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62-654-4306.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